

전주시,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선도

주4.5일제·육아시간·특별 휴가 확대로 직원 만족도·조직 활력 동시 향상

전주시는 '일과 삶이 조화로운 유능한 도시 전주'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공직사회 활력 제고 종합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주 4.5일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금요일 하루 4시간 조기 퇴근이 가능한 주4.5일제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유연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통해 육아기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 돌봄과 가정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공백 부담을 줄이고 동료 직원들의 배려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업무 만족도와 조직 활력까지 높여 전주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사용률은 46.8%, 육아시간 사용률은 21.2%가 각각 증가하는 등 관련 복무제도의 전반적인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일과 삶의 균형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및 성과로 보상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성과중심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달의 으뜸부서 선정 △적극업무 인센티브 지급 △올

해의 공무원 특별보상제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동기를 높이고, 성과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복무 혁신과 성과 보상 체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유연한 복무환경 조성과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는 활력 있는 조직문화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행복과 조직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청 앞마당, '예식공간'으로

노송광장서 '웨딩 in 전주' 제2호 청년 부부 커플 결혼식 열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이 청년 부부의 새출발을 알리는 예식 공간으로 제공됐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웨딩 in 전주'의 제2호 커플이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식은 전주의 상징적인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성 있는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웨딩 in 전주'의 두 번째 결실이다.

제2호 예식의 주인공이 된 예비 부부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노송광장의 푸른 자연을 배경으로 가족과 친지 등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할 계획인데, 야외 환경과 어우러진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웨딩 in 전

주' 사업을 통해 전라감영과 노송광장, 덕진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시내 주요 명소 9곳을 공공예식 공간으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부부에게는 의자·테이블과 꽃장식, 음향 등 예식 연출 비용 100만 원이 기본 지원된다. 또, 별도 요건 충족 시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메이크업(스드레) 비용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200만 원까지 예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전주시 공공예식장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청정지대(youth.jeonju.go.kr) 또는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인구정책과(063-281-8607)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육아심포'로 찾아가는 양육지원 확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거점 어린이집 10개소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는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사회 거점형 양육지원(육아심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육아심포'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부모교육과 부모·자녀 체험활동, 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6년 지역사회 거점형 양육지원(육아심포) 사업' 추진에 앞서 참여 어린이집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방향과 협력체계를 공유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쳤다.

△아이월드어린이집(이상 덕진구 동부권) △코파마어린이집 △세븐펠리 어린이집 △에코누리어린이집(덕진구 서부권) △포마어린이집 △세븐펠리 어린이집 △휴먼시앰푸어린이집

(이상 완산구 서부권) △복지어린이집 △교동원광어린이집(이상 완산구 동부권) △베비스쿨24시어린이집(중부권) 등이다.

각 거점기관에서는 부모교육과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양육 상담, 오감놀이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돼 부모와 영유아가 보다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참여 어린이집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방향과 협력체계를 공유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쳤다.

손경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육아심포' 사업을 통해 양육지원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생활권 안에서 보다 편리하게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자기주도 동아리 운영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오는 11월까지 '2026 자기주도 동아리 나이트 2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자기주도형 동아리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기획력·리더십·자신감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동아리 명칭인 '나이트'는 나무가 한 줄 한 줄 자라듯 청소년의 성장을 의미하는 동아리로, 202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2기를 맞이했다.

지난 1기 프로그램은 플로깅·농촌 체험·나눔·연탄봉사 등 계절별 테마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2기는 지난 1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테마 선정부터 활동 계획·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꿈드림 상담원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참여하며, 스포츠·창작·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계획·실행·평가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권희성 기자

보건복지부, 전주 방문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는 지난 15일 전주시를 방문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는 지난 15일 전주시를 방문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차진경 장애인정책국장과 박문수 장애인정책국장, 전북특별자치도 담당자, 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시 담당 공무원 및 수행 기관 정담인력과 함께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추진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먼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연대(덕진구 아중로 136)에서 자립지원 사업 현황 발표를 청취하고, 이어 자립지원주택을 방문해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2명의 장애인 대상자를 격려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선호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2027년 본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전북대 대학가서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지난 15일 전북대 대학가 일원에서 우리동네 새단장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투기 방지 및 취약지 정비 등을 골자로 한 5월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북대 인근 원룸가 및 고밀적인 금암동 백제대로 일원 취약지 정비 등을 통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많은 대학가 일원을 정비함으로써 전

주시 청소행정을 홍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추진됐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 약 3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한편, 백제대로 580와 백제대로 501 등 취약지 정비를 추진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완산구와 덕진구 내 취약지 등을 선정해 새단장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